

26. 가정 표현하기

26강에서는…

- 1) 가정 접속사 'ถ้า (타-)'를 알아봅시다.
- 2) 양보의 접속사 'ถึงแม้ว่า (though 매-와-)'를 알아봅시다.
- 3) 이유의 접속사 'เพราะ ~ จึง (because ~ ทั้ง)'을 알아봅시다.
- 4) 관계 대명사 'ที่ (티-)'를 알아봅시다.

<태국의 문화> 태국의 무예타이

1. 가정의 접속사 'ถ้า (타-)'

ถ้า (타-): 만일, 만약 ~ 라면

ก็ (꺼-): ~면, ~라면

- ถ้า (타-) + 주어 1+ 동사1 주어2 + 동사2 ...

- ถ้า (타-) + 주어 1+ 동사1 주어2 + ก็ (꺼-) +동사2 ...

ສຸຂາກາພ	ຫຼັກ	건강
ເຮີມ	ໍມ	시작하다
ຝຶກ	ຝ(f)	연습하다
ນາຍໄທຍ	ມູ-아이 타이	무예타이

[EBS 초급 태국어]

ออกกำลังกาย	어-↗ 깨랑 까-이	운동하다
-------------	------------	------

ช่วงนี้ผมมีสุขภาพดีขึ้น

(추-^ 앙 니- 폼 미- 쑤카파-^ 보 디- ^ 쿤)

: 요즘 저는 건강이 좋아졌어요.

ทำอย่างไรมีสุขภาพดีขึ้นค่ะ

(탐 야-^ ㅇ 라이 미- 쑤카파-^ 보 디- ^ 쿤 카)

: 어떻게 해서 건강이 좋아졌나요?

ผมเริ่มฝึกนวยไทยแล้วครับ

(폼 티-^ 푸(f) 무-아이 타이 래-우 크랍)

: 저는 무예타이를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ถ้าคุณออกกำลังกายทุกวัน สุขภาพของคุณก็จะดีขึ้น

(타- 쿤 어-↗ 깨랑 까-이 툭 완, 쑤카파-^ 보 커-ㅇ 쿤 꺼- 짜 디- ^ 쿤)

: 만약 당신이 매일 운동한다면, 당신의 건강도 좋아질 거예요.

咒	辱	보다, 구경하다, 감상하다
สนามมวย	싸나-^ 무-아이	무예타이 경기장, 권투 경기장
ແດວ	태-우	근처, 부근 줄, 열
ພອດີ	퍼-디-	마침, 꼭 맞다, 알맞다

ถ้าพรุ่งนี้ฝนไม่ตก ไปชมมวยไทยกันใหม่

[EBS 초급 태국어]

(^ຫຕ- ^ຫຽງນ- 폰(f) ^ມາຍ ^ຫີກ, ^ບາຍ ^ຫຸມ ^ມູ-^າຍ ^ຫາຍ ^ຫັກ ^ມາຍ)

: 만약 내일 비가 안 온다면, 무예타이 보러 갈래요?

ດីគរបំ ແກវបានមីសនាមមួយពេតិិ

(ដ- ^ຫຽង, ^ຫຕ-^ວុ ^ຫឬ-^ឡ ^ມិ- ^ຫឃ្លា-^ណ ^ມູ-^ଆຍ ^ຫົ-^ດ-)

: 좋아요, 마침 집 근처에 무예타이 경기장이 있어요.

តីកដើម្បីន ។ មីវេលាហ៊ាវាំង កីច្ចានិប័ណ្ឌីយក៉ានុលេខនេះ

(^ຫຕ- ^ຫាយ ^ຫឬ-^អុ ^ມិ- ^ຫី-^ឡុ-^ឡា- ^ວី-^៥, ^ຂ ^ຫុ-^អុ ^បា- ^ຫី ^ຫុ-^ଆຍ ^ຫັກ ^ទុ-^ឡុ)

: 만약 친구들이 시간이 있다면, 친구들도 같이 가자고 권합시다~!

2. 양보의 접속사 'ធីែងម៉ោវា (ធម៌ ^មេ-^វា)'

ធីែង(ម៉ោវា) (ធម៌ (^មេ-^វা)): 비록 ~ 일지라도

- ធីែងម៉ោវា (ធម៌ ^មេ-^វा) 주어 1+ 동사1 주어2 + 동사2 ...

- ធីែងម៉ោវា (ធម៌ ^មេ-^វা) + 주어 1+ 동사1 주어2 + កិ (៥) (^ຂ-) +동사2 ...

ຈិនិ	ចិង	진짜이다, 진실이다
តិឈិរ	ដី- ^ឬ ុ	유일하다, 하나의
តីកអូយ៉ាងន័ំ	^ຫ ຕ- ^យ ៉ា- ^៥ [ុ] ^ន	그러면, 그렇다면
តិឈិក	តិឈិក	끝나다, 마치다
តិឈិប	តិឈិប	서두르다
តាមឲ្យបំ	តាមឲ្យបំ	따라가거나 따라오다, 뒤쫓다 ~대로, ~처럼

[EBS 초급 태국어]

ຂອໂທ່ງຈົງ ຖ ຄະ ວັນນີ້ຄົງໄປມີເຫັນ

(ກ່ຽວ-ຫຼັກ ດິຈິບີ່ ອາວຸນີ້- ຄູ້ ບ້າຍ ມາຍ ຕັນ)

: 정말 미안해요. 오늘 제 시간에 못 갈 것 같아요.

ໄມ່ເປັນໄຣຄຣັບ ຄື່ງ(ແມ້ວ່າ)ຄຸນຈະໄມ່ມາ ພົມກີ້ຈະໄປຄນເດືອງ

(ມາຍ ເບີ່ ລາຍ ກ୍ରຳ, ຖຸ່ (ມະ-ຫວ-) ຄຸນ ແກ້ ມາຍ ມາ-, ພົມ ກ່ຽວ- ແກ້ ບ້າຍ ດິນ ດີ-ຍຸວ)

: 괜찮아요. 비록 당신이 안 와도 저는 혼자 갈 거예요.

ດ້າວຢ່າງນັ້ນ ພັນຍາ ດີຈັນຈະຮຶບຕາມໄປນະຄະ

(ຫຼັກ- ຍາ- ອີ່ ນັນ, ລັກ ລົງ- ກົງ ເອງເຫັນ, ດີຈັນ ແກ້ ພົມ ກ່ຽວ- ດີ- ບ້າຍ ນັນ ອາຍ)

: 그렇다면 일을 마치고 제가 서둘러 뒤따라 갈게요.

3. 이유의 접속사 'ເພຣາະ ~ ຈຶ່ງ (ຝຣຳ ~ ຊົ່ງ)

ເພຣາະ (ຝຣຳ): ~때문에

ຈຶ່ງ (ຊົ່ງ): 그러므로, 그래서

- ເພຣາະ (ຝຣຳ) + 주어1+ 동사1 주어2 + ຈຶ່ງ (ຊົ່ງ) +동사2 ...

- 주어2+ 동사2..... ເພຣາະ (ຝຣຳ) + 주어1 + 동사1 ...

ຂ້າງໃນ	ກ່ຽວ-ອີ່ ນາຍ	안, 안쪽
ບັດຈຸບັນ	ບັດ ກ່ຽວ ອຸ່ມ	입장권
ໜົມດ	ລົດ	다하다, 끝나다, 없어지다

ທຳໄມ່ຄຸນໄມ່ເຂົ້າໜີຂ້າງໃນຄະ

(ທຳມາຍ ຄຸນ ມາຍ ກ່ຽວ ອຸ່ມ ກ່ຽວ-ອີ່ ນາຍ ອາຍ)

[EBS 초급 태국어]

: 왜 안에 들어가서 보지 않나요?

ເພຣະບັດເຫົ້າຈຸມໝາດ ພມຈຶ່ງເຂົ້າໄມ້ໄດ້ກວບ

(프러 뱂 카오 촐 봇, 품 촐 카오 마이 다이 크랍)

: 입장권이 매진되어서, 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ດີຈັນກີເຂົ້າໄມ້ໄດ້ ເພຣະບັດເຫົ້າຈຸມໝາດເໜືອນກັນຄະ

(디찬 껌 카오 마이 다이, 프러 뱂 카오 촐 봇 므-안 깐)

: 저도 입장권이 매진되어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4. 관계 대명사 ທີ່ (티-)

- ທີ່([^]티-): ~인, ~한

ຄນທີ່ໄສ່ເສື່ອສີດຳນັ້ນຄືອໃຈຮະ

(콘 티- 싸이 쓰-아 씨- 담 난 크- 크라이 카)

: 저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 ຄນໃສ່ເສື່ອສີດຳ (콘 싸이 쓰-아 씨- 담): 사람이 검은색 옷을 입었다.

→ ຄນນັ້ນຄືອໃຈຮະ (콘 난 크- 크라이 카): 저 사람은 누구인가요?

ຄນທີ່ຝຶກມາຍໄທຢັ້ງນັ້ນຄືເພື່ອນຂອງພມ

(콘 티- ຢູ່(f) 무-아이 타이 난 크- 프-안 커-ㅇ 품)

: 저 무예타이를 연습하는 사람은 내 친구이다.

→ ຄນຝຶກມາຍໄທ (콘 ຢູ່(f) 무-아이 타이): 사람이 무예타이를 연습한다.

[EBS 초급 태국어]

→ คนนั้นคือเพื่อนของผม (콘 난 크- 프-안 커-○ 폼): 저 사람은 내 친구이다.

5. 대화: 가정 표현하기

ปอนด์: ถ้าพรุ่งนี้ฝนไม่ตก ไปชุมนวยไทยกันไหม
(哺-ㄴ) (타- 프-隆-니- 폰(f) 마이 둑, 빠이 촘 무-아이 타이 깐 마이)
: 만약 내일 비가 안 온다면, 무예타이 보러 갈래요?

น้ำ: ขอโทษจริง ๆ ค่ะ
(나-ㅁ) (카-토-ㅅ 찡-찡 카)
: 정말 미안해요.

พรุ่งนี้คงไปไม่ทัน เพราะติดงาน
(프-隆-니- 콩 빠이 마이 탄, 프-러 뒷 응아-ㄴ)
: 내일 제 시간에 못 갈 것 같아요. 일이 있어서요.

ปอนด์: ไม่เป็นไรครับ ถึง(แม้ว่า)คุณจะไม่มา ผมก็จะไปคนเดียว
(哺-ㄴ) (마이 뻔 라이 크-랍, 퉁 (매- 와-) 쿤 째 마이 마-, 폼 꺼- 째 빠이 콘 디-아우)
: 괜찮아요. 비록 당신이 안 와도 저는 혼자 갈 거예요.

น้ำ: ถ้าอย่างนั้น หลังเลิกงาน ติดนัดจะรีบตามไปนะค่ะ
(나-ㅁ) (타- 야-○ 난, 랑 르 ^-ㄱ 응아-ㄴ, 디찬 째 리-ㅂ 따-ㅁ 빠이 나 카)
: 그렇다면 일을 마치고 제가 서둘러 뒤따라 갈게요.

[EBS 초급 태국어]

〈복습하기〉

다음의 한국어를 보고 적절한 태국어 문장을 이야기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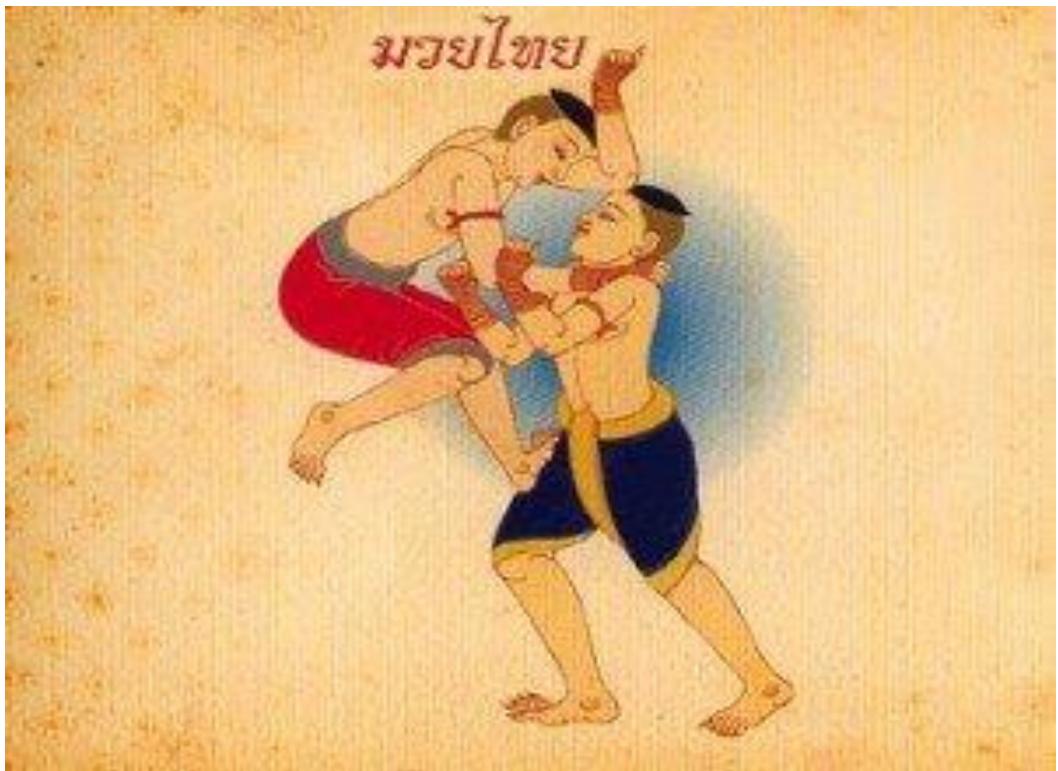
- 만약 당신이 매일 운동한다면, 당신의 건강도 좋아질 거예요.
- 만약 친구들이 시간이 있다면, 친구들도 같이 가자고 권합시다~!

- 정말 미안해요. 오늘 제 시간에 못 갈 것 같아요.
- 비록 당신이 안 와도 저는 혼자 갈 거예요.

- 입장권이 매진되어서, 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 저도 입장권이 매진되어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 저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 저 무예타이를 연습하는 사람은 내 친구이다.

< 태국의 무예타이 >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Técnica_muay_boran.jpeg)

무예타이는 태국의 문화적 자산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겨루기 무술로 여겨진다. 무예타이의 특징은 신체 9개 부위를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즉, 2개의 손, 2개의 발, 2개의 무릎, 2개의 팔꿈치와 1개의 머리를 사용한다. 무예타이는 자신을 지키는 무술이며, 전술학의 기초로서 과거 태국의 군인 남성이라면 반드시 익혀야 하는 학문이었다. 무예타이는 지략과 기술, 재치를 사용하는 학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고위 관료와 무인계급, 그리고 일반인들까지도 자신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무예타이를 연습했다고 전하고 있다. 무예타이는 평시에는 체육 훈련과 겨루기 기술을 익히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었으며, 중요한 날에는 무예타이 경기가 사회적 행사가 되기도 했다.

무예타이는 과거 “쑤완나품” 이라 불린 지역에서 발전되어 왔다. 이 지역은 크고 작은 나라들로 구성되어있었는데, 오늘날 베마, 라오스, 크메르,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알려진 곳이다. 태국 아유타야 초기의 왕정법에서 무예타이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약 957년 이후 즈음 혹은 그보다 더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과 보완을 거듭 해온 무예타이는 1887년 쿨라롱꼰 대왕(라마 5세)의 교육 과정 재정립 때 교과목으로 교육 커리큘럼에 포함되었다. 특히 체육교사 양성학교와 왕립 군사학교에서는 무예타이를 일주일에 2시간 훈련하도록 하였다. 1929년 룸피니 공원 부근에 1945년 라차담닌에 상설 경기장이 생겨 경기를 열게 되었다. 태국 국내외로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다.